

미래의 포장업계를 선도하겠다

환경친화적 포장분야에 관심

양영모 / 신성대학 산업포장과 1년

이 해로 4회째를 맞는 한용교포장인상 장학금 부문 수상자로 신성대학 산업포장과에 재학중인 양영모 군이 선정됐다. 양영모 군은 수상소감으로 “기쁨보다는 새로운 각오로 더욱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어 어깨가 무거워진다고 밝히고 “도와준 모든 분들과 영광을 나누고 싶다”고 덧붙였다. 고등학교 졸업 후 새로운 앞날 설계를 위해 고민하던 중 포장학과가 타대학에 개설된 학과가 몇 안되는 희귀학과이고 장래성도 있다고 판단되어 포장을 전공으로 택하게 됐다고 밝히는 그는 현재 전공에 무척 만족하고 있으며 새로운 것을 탐구한다는 것에 폭 빠져 있다고 한다. “포장을 배우면서 가장 많은 관심을 가지는 분야는 포장기법 분야입니다. 특히 식품포장에 관심이 많은데 환경친화적인 재료개발에 관심이 많습니다”라는 패기에 찬 그의 말에서 이제 막 사회에 첫발을 내딛고 아직 세파에 찌들지 않은 순수함을 느낄 수 있었다.

사실 양영모 군은 포장공부를 처음 시작할 때 생각과는 달리 무척 어렵게 생각했다고



한다. 과자포장지, 박스가 포장의 전부로 알았던 그에게 완충포장이니, 필름의 재질이니, 골심지니 하는 말은 생소했고 적용하기도 어려웠지만 1년간의 학교생활 끝에 얻은 결론은 ‘포장에 인생을 걸어보겠다’는 결론에 도달했다고 미소지었다. “자신이 선택한 길이 적

성에 맞지 않든 맞든 간에 우선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시도 해 보지도 않고 포기할 수는 없는 것이니까요”라는 양영모 군은 시행착오 속에서 얻어지는 경험이 포장분야의 일뿐만 아니라 혹여 다른 일을 하더라도 인생의 소중한 지침서 역할을 한다는 평범한 진리를 나이답지 않게 깨닫고 있는 듯 했다.

“앞으로 10년 후에는 포장업계에서 이름을 날리는 사람이 되어있지 않을까요”라며 웃는 그의 모습에서 이제 막 사회에 첫발을 내딛으려 하는 당찬 모습을 볼 수 있었다. 그의 말대로 10년 후 우리나라 포장을 선도하는 걸출한 인물이 되기를 기대해 본다. ☺

박기진 기자